

“경제성장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

2008년 세계경제 대란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화재단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강좌를 마련했다. 한국 경제에 대안이 있기는 한걸까?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970년대 한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경제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한다.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수석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문제이며 이로 인해 경제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이 일정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 수석 · 前 국회의원)

일시: 2010년 9월 9일

주제: 한국경제, 대안을 찾는다

장소: 평화재단 서초이오빌

주최: 평화재단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9월 9일 평화재단에서 ‘한국경제 대안을 찾는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현재 한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해답 저출산·고령화·경제우위 위험하다”

#한국경제의 대안이 있을까? 이를 타개할 대안은 있는가?

경제라는 것은 특별한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신흥국가로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국가였다. 민주화도 마찬가지로 압축된 기간 속에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하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서 과대 포장을 해왔다. 나라의 규모, 인구의 구조를 보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모르면 경제 성장을 잘 이끌어 왔지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보다 낮고 조화를 이루면서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잘 산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어떻게 잘 풀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경제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물질이 풍부하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경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서구에서 100년 간에 이뤄낸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이뤄냈다. 하지만 압축성장을 하면서 사회구조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민주주의, 평등이라는 헌법과는 동떨어지게 나라 운영을 해왔다.

당시 나라에 돈이 없으니 투자가 없고 소득이 늘지 않자 빈곤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외저축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하게 하면서 경제성장과 소득을 이끌어 왔다. 시장경제에 맡겨서 똑같은 전제조건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경제가 언제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였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했다.

부족한 자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오늘날 재벌 구조가 시작된 시발점이다. 특정기업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다보니 특정기업만 성장했다. 중소기업은 자본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은 재화가 늘고 부를 이룰 줄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을 키우게 됐다.

이때부터 점차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됐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앞섰다. 하지만 비등해진 이후부터는 정치세력이 힘을 못 쓰면서 경제세력의 힘이 늘리기 시작했다. 경제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

을 움직이는 형태가 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의 광고, 학자의 연구비 모든 것은 기업의 경제력에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양심마저 잃어가게 됐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인 소리를 내야 할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경제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만해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행동했다. 일본은 1950~1975년 동안 매년 8%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80년대 중반까지 4~5%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재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1985~1989년 동안 닷컴이수가 3배가 뛰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1995년까지 닷컴이수가 계속 올라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며 세계는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요인이 됐다.

이 문제는 일본이 자국의 한계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일본 인구는 1억 6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나라였다.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얻은 수익으로 세계 제2의 선진국가가 된 것이다. 모든 국가가 일본을 부러워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미국의 적 1호가 일본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일본경제는 1989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 제패를 호언장담하다가 90년대부터 고꾸라져 지금에 이르렀다.

“가라앉은 일본경제 따라가선 안돼 한국경제만의 대안 찾아야”

1970년대 일본 경제를 경이한 사람들은 일본의 고령화에 집중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펼치지 않았다.

일본의 문제 중 또 하나는 경제의 정치 간섭이었다. 돈과 정치를 연계해 오늘날까지 일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저환율 정책으로 수출만 늘렸다. 저환율정책은 저소득계층에 고통을 떠넘기기 마련이다. 외환을 벌어들이 국채를 사고, 부동산을 사면서 국내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증권으로 돈의 흐름을 유도하면서 일본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던 중 1985년, 미국은 적자발생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선진동맹국 재무장관들을 모아 뉴욕 맨하탄 플라자호텔에서 플라자 협정을 맺었다. 일본·독일·프랑스·영국 화폐의 가치 절하시켰다.

1달러당 250엔이던 엔화 가치를 1달러당 125엔으로 50% 가까이 절상시키면서 일본 수출업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됐다. 이에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투기가 바람을 일으켰다. 일본경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금융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가
2008년 7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폭삭

가라앉았다. 전 세계가 경제공황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금방 추락할 것이라고 긴장했으나 막상 상황이 그렇지 않자 회의에서는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

금방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던 미국경제의 회복이 왜 느려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성장은 소비에서 비롯됐다. 미국 경제성장은 소비로 이뤄졌다. 싼 금리로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7000억불 국가수지가 적자를 내도 겁내지 않았다. 이로 득을 본 것은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다. 달러를 벌어들여 외환보유를 늘리고 국채를 사서 경제를 살렸다.

최근 미국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소비의 여력이 없어진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경제운명을 하면서부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민영화·자유화로 시장경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미국금융위기다.

우리도 한동안 그렇게 경제운명을 해왔다. 일본은 자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땅 넓은 미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만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리=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9월 9일 평화재단 특강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강의를 듣고 있다.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장,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 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배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을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자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도서관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